

치고(稚児) 문화의 수용과 변용

-기온마쓰리(祇園祭)를 중심으로-

김 현 옥*

(e-mail : hwk33@kookimin.ac.kr)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기온마쓰리의 치고 |
| 2. 기온마쓰리의 기원과 우마오사와라와(馬長童) | 3.1. 치고의 역할 |
| 2.1. 기온마쓰리의 기원 | 3.2. 야마호코(山鉾) 순행과 치고 |
| 2.2. 기온마쓰리의 예능과 우마오사와라와 | 4. 호코치고(鉾稚児)와 치고마이(稚児舞) |
| | 5. 맺음말 |

키워드 : 치고(Chigo), 기온고료에(Giongoryoe), 우마오사와라와(Umaosawarawa), 야마호코(Yamahoko), 각코마이(Kakko Dance), 고즈텐노(Kozutenno)

1. 머리말

기온마쓰리는 교토 야사카 신사(八坂神社)의 제례로 일본을 대표하는 마쓰리 중의 하나이다. 역병퇴치를 기원하는 고료에(御霊會)가 그 시초이며, 10세기에 성립하여 천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를 이어왔다.¹⁾ 당초에는 텐가쿠오도리(田樂踊り)와 같은 춤이 주목을 끌었지만, 14세기 이후 ‘야마호코 순행(山鉾巡行)’이 마쓰리의 중심이 되었다. 다시(山車)의 한 종류인 야마호코가 정해진 순로에 따라 거리를 도는 야마호코 순행은 2009년 9월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고, 2016년도에 ‘야마·호코·야타이 행사(山·鉾·屋台行事)’로 묶여 재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기온마쓰리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와키타 하루코(脇田晴

* 국민대학교, 조교수, 중세연구

1) 오닌 난(応仁の乱)·분메이 난(文明の乱)이 일어난 1467-1477년 이후, 30년간 중단되었던 기간이 있다.

子)의 『중세교토와 기온마쓰리』²⁾가 대표적인 연구서이다. 와키타는 이 책에서 기온마쓰리의 기원, 제례형태, 마쓰리 지지층의 역할, 미코시(御輿)와 야마호코 순행 등을 중심으로 헤안시대(平安時代)부터 무로마치시대(室町時代)에 걸친 기온마쓰리 변천사를 정리하고 있다. 기온마쓰리에 대한 연구는 이처럼 마쓰리의 역사 내지 야마호코가 등장한 남북조 시대 이후의 제례형태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비교해 현재 기온마쓰리의 중핵을 담당하고 있는 치고(稚児)와 치고의 예능을 둘러싼 논의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온마쓰리의 치고에 관한 선행연구로 먼저 우에키 유키노부(植木行宣)의 ‘야마호코의 흥을 돋우는 치고마이’³⁾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온마쓰리의 나기나타호코치고의 원류는 작은 장고를 목에 걸고 춤추는 ‘각코마이(羯鼓舞)’라고 지적하고, 각지의 제례에서 볼 수 있는 각코마이 치고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엔넨(延年)과 같은 장르에서 볼 수 있는 시시마이(獅子舞)를 함께 소개하며 엔넨후류(延年風流)에 있어 타악기 중심의 연주로 흥을 돋우는 예능의 형태가 기온마쓰리의 예능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온마쓰리의 나기나타호코치고가 작은 장고인 각코를 차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어 참고가 되는 논문이지만, 주로 예능의 형태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이다. 다음으로 야마지 고조(山路興造)가 「기온고료에의 예능 - 우마오사·쿠세마이구루마·각코치고-」⁴⁾라는 논문에서, 교토지역 이외에서 열리는 기온마쓰리와 각지의 민속예능에 남아있는 치고 예능을 소개하며 호코치고마이(鉦稚児舞)의 루트를 찾으려고 하였다. 이 연구 또한 치고마이의 성립을 밝히는데 있어 시사점이 크지만, 저자 야마지가 논문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이 주로 기온고료에 예능의 역사고찰에 중심을 둔 연구이다.

본고는 이제까지 축적된 기온마쓰리에 대한 연구를 발판으로 하여 치고가 기온마쓰리에 등장하는 배경 및 역할, 그리고 치고 예능의 특징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기온마쓰리의 구조변화 속에서 치고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알아보고, 마쓰리의 치고문화 수용양상이라는 새로운 시점에서 기온마쓰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2) 脇田晴子(1999) 『中世京都と祇園祭』 忠公新書, pp.2-64

3) 植木行宣·田井竜一編(2010) 『祇園囃子の源流』 岩田書院, pp103-104

4) 「祇園御霊会の芸能一馬長・久世舞車・羯鼓稚児一」 『芸能史研究』(94)、1986、7. 후에 山路興造著 『京都芸能と民俗の文化史』(思文閣出版, 2009)에 재수록.

2. 기온마쓰리의 기원과 우마오사와라와(馬長童)

기온마쓰리의 정식명칭은 기온고료에(祇園御靈會)로 재난을 초래하는 혼령이나 역병퇴치를 위한 제례인 고료에(御靈會)가 기원이다. 헤안시대(平安時代)에 원령에 의해 재앙이 초래된다고 믿었던 고료신앙(御靈信仰)이 유행한 가운데 원령을 진혼하는 고료에 의례가 성행하였다. 이 고료에 의례에서 신을 공양하기 위한 다양한 예능이 연회되었고, 기온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온고료에가 발전하면서 예능의 내용은 더욱 다양하고 성대해 졌다. 특히, 헤안 귀족층이 기온고료에 미코시 행차에 수반된 예능행렬을 적극 후원하는 가운데 등장한 ‘우마오사와라와(馬長童)’는 훗날 기온마쓰리의 중핵을 담당하는 ‘나기나타호코치고(長刀鉾稚児)’의 출현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

2.1. 기온마쓰리의 기원

고료에 첫 기록은 이미 알려진 대로 858년부터 887년까지의 정사를 기록한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実録)』(제7권)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의 863년(貞觀 5) 5월 20일 조에는 신센엔(神泉苑)에서 고료에를 집행하였다 하고, 이 자리에는 칙령에 따라 당시 무관인 근위부(近衛府) 차관의 감독 하에 다수의 관료가 출석했으며, 여섯 영좌 앞에 영궤를 설치하여 꽃과 과실을 바치고 공손히 받드는 마음으로 제사 올렸다는 기록이 보인다.⁵⁾ 이 날의 고료에가 국가적인 행사로써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으며, 원혼들을 극진하게 대접하여 탈을 막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 중에 ‘여섯 영좌 앞에 영궤를 설치했다(靈座六前設=施几筵)’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 여섯 영좌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일본삼대실록』의 같은 날 기록에서 “ 이른바 고료로써 스도천황(崇道天皇) · 이요친왕(伊予親王)과 그 모친 후지와라(藤原) 부인 · 관찰사인 후지와라 나카나리(藤原仲成) · 다치바나노 하야나리(橘逸勢) · 혼야노 미야타마로(文屋宮田麻呂)”라고 하고 이들 “모두 죽음을 당한 원혼들이다”⁶⁾라고 적고 있다. 이들 고료로 일컬어지

5) 於神泉苑修御靈會。勅遣左近衛中将從四位下藤原朝臣基經。右近衛權中将從四位下兼行內藏頭藤原朝臣常行等。監會事。王公卿士赴集共觀。靈座六前設施几筵。盛陳花果。恭敬薰修。(인용은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국사대계 제 4권에 수록된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実録)』에 의함. 이하 동일)

고 있는 여섯 인물은 실제 역사에 있어서 세력을 잃고 권력의 좌에서 물러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다.⁷⁾ 이와 같이 『일본삼대실록』은 고료에를 국가적인 행사로 기술하고 있지만, 고료에는 본래 민중들에 의해 발생한 제레이다. 헤안 시대 생활문화연구의 대가인 역사학자 이노우에 미쓰오(井上滿郎)는 고료에는 재난과 죽음을 초래하여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는 고료의 존재를 다른 세계로 쫓아내는 형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중들 사이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고료를 현세에서 다른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고료에의 본질이라고 하였다.⁸⁾ 고료에의 민간발생설과 함께 고료에는 고료를 진좌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세계로 떠나보내는 것이 본질이었다고 설명한 이노우에의 논문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사료의 기록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역신을 위한 고료에를 실시하였다. 목공료의 수리직공이 미코시 2대를 만들어 기타노(北野) 후나오카야마(船岡山)에 안치시키고, 승려에게 인왕경을 강설 하도록 했다. 도성 사람들이 악사를 초대하여 음악을 연주하고 신장대를 들었 으며, 그 숫자가 몇 천만인지 알 수 없었다. 제레 종료 후에는 (미코시를) 나 니와(難波) 바다에 띄어 보냈으며 이는 조정의 뜻이 아닌 항설에서 기인한 것이다.⁹⁾

이상은 『일본기략(日本紀略)』 994(正曆5)년 6월27일의 기록이다. 위의 기록에 따르면 고료에 의례에 몇 천만에 이르는 교토 시민이 신장대를 들고 미코시(御輿)를 참배하였으며, 제레가 끝난 후에는 역신을 태운 미코시를 오사카(大阪)의 나니와(難波) 바다로 흘려보냈다고 한다. 불경과 음악, 수많은 시민들에 의한 참배를 통해 재난을 초래하는 고료를 진정시키고 그 후에는 고료를 미코시에 태워 나니와 바다에서 띄어 보냄으로써 현세에서 다른 세계로 떠나

6) 所謂御靈者。崇道天皇。伊予親王。藤原夫人。及觀察使。橘逸勢。文室宮田麻呂等是也。並坐事被誅。冤魂成_レ屬。

7) 인용부분에 등장하는 고료의 특징과 신격화 배경에 대해서는 이노우에 미쓰오(井上滿郎(1976) 「御料信仰の成立と展開」 『奈良大学紀要』 5号, pp.187-201), 이토 노부히로(伊藤信博(2003) 「御靈会に関する一考察(御靈信仰の關係において)」 『言語文化論集』 24(2), pp.3-17) 등의 논문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된다.

8) 井上滿郎(1976) 「御料信仰の成立と展開」 『奈良大学紀要』 5号, p.196

9) 為疫神修御靈會、木工寮修理職造神輿二基、安置北野船岡上、屈僧令行仁王經之講說、城中之人招伶人、奏音樂、都人士女持幣帛、不知幾千萬人、礼了送難波海、此非朝儀、起自巷說(인용은 일본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국사대계 제 5권에 수록된 『일본기략(日本記略)』에 의함)

보내려 한 것이다. 바다를 통해 다른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제의형식이 조정에 의한 것이 아닌 민간에서 발생했다고 덧붙이고 있으므로 고료에가 당초에는 민간에서 발생하여 국가적인 행사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일본삼대실록』 863년 5월 20일 조에 고료에 개최배경과 의례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최근 역병이 무성하여 전국에 죽음에 이르는 백성이 많으니 이는 고료의 재화에 의한 것이다. 도성에서 시작하여 그 밖의 지역에 이르기까지, 수확철인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끊이지 않고 고료에를 열고 있다. 불경을 외며 예불하거나 가무하고, 동자를 단장시키고 달리면서 활을 쏘게 하고, 윗옷을 벗은 힘센 역사가 스모를 하고, 말을 타고 달리는 기예를 보이며, 경마 경주, 배우의 잡기를 서로 겨루게 하였다. 모여서 구경하는 사람들로 길이 막히고, 가까이서도 멀리서도 차례로 관습이 되어 차츰 풍속이 되었다. 올해 초 봄 해역이 전염병으로 유행하여 백성이 많이 죽었다. 조정이 기도를 위해 여기에 이르러 이 고료에를 집행하고, 이로써 기원에 대한 화답의 예를 표하려 하였다.¹⁰⁾

위의 기록을 통해 당시 전국에서 유행하는 역병이 원혼에 의해 초래된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진혼하기 위한 고료에가 이미 전국 각지에서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료의 진혼을 위해 고승에 의한 염불을 비롯하여 스모, 동자의 활쏘기, 경마 경주, 배우에 의한 잡기 등 각종 예능을 진상하였는데, 구경하는 사람들로 인해 길이 막힐 만큼 이 날의 예능이 성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노우에 미쓰오가 지적하고 있듯이 고료에 의례 시에 연희되는 각종 예능도 재앙의 근원인 고료를 물리치는 것이 목적이었다.¹¹⁾ 이는 일본의 제례의식에서 신을 위로하고 진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예능이 피로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고료에는 처음에 부정기적으로 실시되었지만, 고료를 모시기 위한 신사가 건립된 이후부터는 상시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와키타 하루코는 이들 고료 신사가 건립되기 이전의 고료에는 편의에 따라 제단을 설치하고 신을 맞아 제의해

10) 近代以來。疫病繁發。死亡甚衆。天下以為。此災。御靈之所生也。始自京畿。爰及外國。每至夏天秋節。修御靈會。往々不絶。或礼仏説經。或歌且舞。令下童貫之子。觀粧馳射。膂力之士袒裼相撲。騎射呈芸。走馬争勝。倡優嫚戲。遞相誇競。聚而觀者莫不填咽。遐迩因循。漸成風俗。今茲春初咳逆成疫。百姓多斃。朝廷為祈。至是乃修此會。以賽宿禰也。

11) 井上満郎(1976)「御料信仰の成立と展開」『奈良大学紀要』5号, p.196

왔다고 지적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곳으로 후나오카(船岡), 이즈모지(出雲路), 무라사키노(柴野), 기누가사(衣笠), 하나조노(花園) 등과 함께 기온(祇園), 야사카(八坂)를 들고 있으며, 이곳은 원래 교토 외곽의 장송의례를 열던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에 신을 다시 돌려보내는 의례라고 할 수 있는 고료에를 거행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고 설명하고 있다.¹²⁾ 앞서 인용한 『일본기략』 994년 6월 27일 기록에 후나오카에서 역신포치를 위한 고료에가 열리고, 이 제의가 끝난 후에 고료를 태운 미코시를 나니와 바다에 띄워 보냈다는 기록에서 보듯이 재앙의 근원인 고료를 다른 세상으로 보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고래의 장송의례지역이 선택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고료를 제의하는 고료 신사가 건립되었던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곳이 로큐쇼 신사(六請神社), 이마미야 신사(今宮神社), 야사카 신사(八坂神社) 등이다.

먼저, 로큐쇼 신사가 세워진 기누가사지역은 기누가사 산에 묻힌 고료를 제의하던 곳이었으며 동시에 장송지이기도 했다. 다음으로 이마미야 신사 역시 장송의례와 고료에의 역사를 가진 무라사키노 지역¹³⁾에 건립되었다. 무라사키노는 헤안 천도 이전부터 역신을 제의하던 곳이며, 고대의 장송지역, 특히 화장터로 알려진 렌다이노(蓮台野)가 무라사키노에 속한다. 야사카 지역은 렌다이노와 아다시노(化野)에 이어 헤안의 3대 장송지 중 하나였던 도리베노(鳥辺野) 일대에 속하는 지역이다. 죽음과 저승을 의식하게 하는 경계, 이곳에 야사카 신사가 건립되었던 것이다. 미쓰바시 다케시(三橋健)는 대표적인 고료 신사로 교토의 기타노(北野)·기온(祇園)·이마미야(今宮)·가미고료(神御靈)·시모고료(下御靈) 신사 등을 들면서, 이 중에서도 고즈텐노(牛頭天皇)를 주신으로 섬기는 기온샤(祇園社), 즉 현재의 야사카 신사(八坂神社)에서 실시하던 기온고료에가 가장 유명한 의례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⁴⁾ 야사카 신사의 제례인 기온고료에와 관련된 첫 기록은 『기온샤혼엔로쿠(祇園社本縁録)』 869년 6월 7일조에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다.

869년(貞觀十一) 전국에 역병이 돌 때에 왕좌의 영화, 백성의 안전, 역병퇴치, 국가수호를 위해서 6월7일 20척 길이의 장대 66개를 세우고, 동 14일 도성

12) 脇田晴子(1999) 『中世京都と祇園祭』 中公新書, p.5

13) 신센엔, 기온 등의 고료에 성행과 함께 무라사키노를 중심으로 '무라사키노 고료에'가 열렸고, 이는 훗날 이마미야 마쓰리의 기원이다.

14) 三橋健(2007) 『神社の由来がわかる小事典』 PHP新書, p.202

의 남자 아이들과 교외의 백성들을 이끌고 미코시(御輿)를 신센엔으로 보내 제의하였다. 이를 기온고료에라 칭하고, 그 후 매년 6월 7일과 14일의 항례가 되었다.¹⁵⁾

위의 기록에서 869년에 일본 각지에서 역병이 유행하였을 때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당시의 지역 수를 상징하는 66개의 창을 세우고, 도성안팎의 백성이 미코시를 이끌고 신센엔에 모여 기온 신을 제의하였고, 이것이 기온고료에의 시작이며 이후 매년 6월 7일과 14일에 관례로 실시되고 있다고 하였다. 『기온사혼엔로쿠』는 현존하지 않는 사료로 야사카 신사 측이 1964년에 편집 간행한 『야사카 지(八坂誌)』에 수록되어 있는 형태로 전해지고 있지만, 하야시아 다쓰사부로(林屋辰三郎)를 비롯한 많은 선학들이 사료가치를 인정하고 있다.¹⁶⁾ 위의 인용문에서 20척 길이의 창은 신이 강림하는 무구로 신간(神竿)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미코시를 야사카 신사가 아닌 신센엔으로 보내 제사 지냈다는 것은 후나바시 고료에 의례에서 미코시를 나니와 바다에서 띄어 보냄으로써 고료를 현세에서 다른 세상으로 이동시키려 했던 것과 같은 의도였다고 생각된다. 신센엔에는 비를 기원하는 주술작법을 실시하던 커다란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의 주술적인 힘을 빌려 고료를 진정시키기 위한 제례를 시행한 것이라 생각된다.

기온고료에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미코시를 신센엔으로 보내어 제사지내는 의례형식에 변화가 일어난다. 바로 미코시도교(神輿渡御)의 도입과 그에 따른 오타비쇼(御旅所)의 설치이다. 미코시도교는 신령이 강림한 미코시가 신자들의 생활터전을 순행하는 의례이며, 이 때 미코시를 임시로 봉안시키는 장소가 오타비쇼이다. 와키타 하루코에 따르면 미코시도교, 즉 미코시를 맞이하여 얼마간 오타비쇼에 모신 뒤 다시 신사로 돌려보내는 의례가 정착한 것은 11세기 후반이다.¹⁷⁾ 오타비쇼에서는 제의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예능이 연희되는 것이 보통인데, 기온고료에의 경우도 미코시가 오타비쇼에 머물고 있는 사이에 각종 예능이 진상되고, 신을 만족시킨 후에 야사카 신사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15) 貞觀十一,天下大疫之時、為寶祚隆榮、人民安全、疫病消除、鎮護卜部日良鷹奉勅、六月七日建六十六本之矛長二丈許、同十四日、率洛中男兒及郊外百姓而送神輿于神泉苑以祭焉、是号祇園御靈會爾來每歲六月七日・十四日為恒例矣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八坂神社編『八坂誌.乾』에 수록된 『祇園社本縁録』에서 인용)

16) 三好賢周(1997) 「情報文化と伝統文化について」 『情報文化学会全国大会講演予稿集』 5, p.38

17) 脇田晴子(1999) 『中世京都と祇園祭』 忠公新書, p.18

2.2. 기온마쓰리의 예능과 우마오사와라와

고료에 의례에서 다양한 예능이 연희되고 있음을 『일본삼대실록』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기온고료에 행사에 산가쿠무나구루마(散樂空車)가 도입된 점이 주목된다. 후지와라 사네스케(藤原実資, 957-1046)의 일기 『쇼유키(小右記)』 1013년(長和二年) 6월 14일 기록에 따르면 미코시 행차에 이어 산가쿠무나구루마가 뒤따르고 있다.

오늘 기온고료에 미코시에 이어 산가쿠무나구루마가 뒤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좌대신 어른(藤原道長)의 명령에 따라 일반인들이 나와 제지하고, 산가쿠 연희자의 옷을 찢었다. 18)

산가쿠무나구루마는 지붕 없는 끌차로 배우들이 그 위에서 우스꽝스런 산가쿠를 연희했다. 이를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가 제지시켰고, 관중들이 이 명령을 따르면서 산가쿠 연희자의 옷을 찢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미코시의 뒤를 이은 산가쿠무나구루마의 행차를 제지했다는 부분을 “산가쿠무나구루마 행차 금지령”¹⁹⁾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산가쿠무나구루마 예능이 과열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금지시킨 것이라고 풀이하는 것이다. 그 진위 여부를 쉽게 결론지을 수 없지만, 적어도 11세기에 산가쿠무나구루마가 등장해서 주목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12세기에 들어서는 덴가쿠를 중심으로 한 예능이 기온고료에 예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세기 전후에 성행했던 기온고료에의 모습을 헤안 귀족 후지와라 무네타다(藤原宗忠, 1062-1141)가 그의 일기 『쥬유키(中右記)』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4일 임신날, 맑았다 흐렸다함. 가끔 가랑비가 내림. 기온고료에는 네 분 덴쇼비토(가 봉납하는) 우마오사와라와 미코, 슈메, 덴가쿠 수백 명, 그 밖에 기온의 쇼시 승려가 수십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제례행차에 참가하여 수행하고, 무용수 열 사람, 의전용 말안장에 앉은 사자(행렬이 이어진다). 무릇 천하

18) 今日祇園御霊会、御輿後有散樂空車、而依左大臣殿仰、雜人数多出来、打留散樂人、破損其衣裳(인용은 와세다대학도서관 古典籍総合データベース 『小右記』에 의함)

19) 小山利彦(2013) 「祇園御霊会と王朝文学」 『立命館大学』 630, p.626

의 분에 넘치는 사치는 견줄 수도 없으며, 금은·금수 풍류와 미려함은 다 적을 수가 없다. 두 법왕과 상왕(시라가와 법왕, 도바 상왕)은 안찰 주나곤(按察中納言)이 산조무로마치(三条室町)에 판자로 설치한 관람석에서 관람하셨다.
20)

이상은 고료에 행렬이 상당히 큰 규모이며, 화려한 의례였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더욱이 상왕과 법왕이 관람석에 앉아 구경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의 기온고료에가 왕족의 흥미를 끌 만큼 장관이었으며 의미 있는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본문에 수백 명의 덴가쿠가 참여했다고 적고 있으므로 당시 기온고료에 행렬에 대규모의 덴가쿠가 참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수십 명의 병사에 무용수, 말을 탄 신하 등으로 이어지는 행렬의 화려함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는데, 이는 『연중행사에마키(年中行事繪卷)』에 수록되어 있는 기온고료에 광경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미코시는 물론 악기를 들고 춤추는 덴가쿠, 후류가사(風流傘)를 쓴 채 말을 타고 있는 미코(巫女), 부가쿠(舞樂), 시시마이(獅子舞), 세노(細男) 등, 등장하는 예능의 장르가 다양함은 물론 행차에 동원된 인원이 현대의 기온마쓰리와 다를 바 없을 만큼 장관을 이루고 있다.²¹⁾

위의 인용문에 “네 분 덴조비토 우마오사와라와(四方殿上人、馬長童)”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네 분은 와키타의 해석을 따르면 시라가와 법왕(白河法王), 도바 상왕(鳥羽上王), 다이켄몬인(大賢門院), 스토쿠 천황(崇徳天皇)을 가리키며, 이들이 각각 덴조비토(殿上人)에게 명하여 우마오사와라와라를 봉납하게 하였다²²⁾는 의미이다. 우마오사(馬長)란 제례에서 말을 타고 천천히 줄지어 걷던 사람들을 가리키며, 귀족이 부리던 하인, 특히 시동(侍童)을 화려하게 치장시켜 말에 태웠다. 기온고료에의 우마오사와라와는 조화 등으로 아름답게 장식한 의상을 입고 화장을 한 소년이 깃털이 달린 샷갓을 쓰고 말을 타고 행차한다. 이는

20) 十四日壬申、或晴或陰、時々小雨、祇園御霊会、四方殿上人、馬長童、巫女、種女、田楽各数百人、此外祇園所司僧隨身数十人兵供奉、舞人十人、使乘唐鞍、凡天下過差不可勝計、金銀錦繡風流美麗不可記尽、兩院於按察中納言三条室町棧敷御見物云々(인용은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콜렉션 史料通覽 『中右記』 大治二年六月十四日조에 의함)

21) 『연중행사에마키』에 수록된 기온고료에에 대한 설명은 고야마 도시히코(小山利彦(2013) 「祇園御霊会と王朝文学」 『立命館大学』 630, p626), 요시다고지로(吉田孝次郎(1993) 「祇園会と渡来懸装染織品」 『日本研究』 9, p.46) 의 논문 참조.

22) 脇田晴子(1999) 『中世京都と祇園祭』 忠公新書, p32

왕이나 귀족의 명령에 따라 제례의식에 꽃을 바치기 위해 자신이 부리던 시동을 말에 태워 대신 공양하게 했던 풍습이다. 당시 기온고료에 행렬에 우마오사와라와의 참가를 지원하던 층이 왕족이나 귀족들이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논문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 그 중 야마지 고조는 귀족층이 기온고료에 행렬에 각종 불거리를 참가시키는 것이 전통이었다고 하고, 이 전통은 11세기 말기에 우마오사와라와 참가로 고정화 되어갔다고 설명하였다.²³⁾ 이렇게 보면 기온고료에 예능 행차는 산가쿠무나구루마에 이어 덴가쿠, 그리고 우마오사와라와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온고료에는 그 후 무로마치 시대에 이르러 커다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우마오사와라와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시기를 맞이한다.

3. 기온마쓰리의 치고

메이지(明治) 정부가 신사에서 불교적인 요소를 배제시키려 한 신불분리정책 이후에 기온고료에는 기온마쓰리로, 기온샤는 야사카 신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현재 야사카 신사 기온마쓰리의 관심은 야마호코(山鉾) 순행에 쏠려있고, 그 중에서도 행차의 선두에 있는 나기나타호코(長刀鉾)가 주목받고 있다. 나기나타호코에는 치고라 불리는 소년이 타고 있으며, 이 소년이 커다란 칼로 금줄을 자르는 퍼포먼스를 기점으로 야마호코 순행이 시작된다. 고대부터 치고는 신령이 강림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여기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교토사람들은 나기나타호코 치고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한다. 본래 후나호코(船鉾)라 불리는 호코 이외에는 10세 전후의 소년인 치고가 타고 있었지만, 1929년의 호카호코(放下鉾)를 마지막으로 모두 인형으로 대체되었으며, 나기나타호코의 치고는 인형이 아닌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이키치고(生稚児)’라고 칭한다.

3.1. 치고의 역할

치고는 본래 유아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사원이나 귀족집안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맡아보는 소년을 일컫기도 하고, 마쓰리나 사원의례에서 분칠한 얼굴에 화려하게 치장하고 등장하여 제례의식에 참여하는 어린 소년을 칭하기도 한다.

23) 山路興造(1986) 「祇園御霊会の芸能一馬長・久世舞車・羯鼓稚児」 『芸能史研究』 94, p.16

가와구치아사마 신사(河口淺間神社)의 제례에서와 같이 여아를 선발하여 치고마이(稚児の舞)를 추게 하는 예도 있으므로 소년 뿐 아니라 소녀를 치고라 칭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문화에 있어서 치고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경우는 사원에 소속된 동자를 지칭할 때이다. 『이와나미불교사전(岩波仏教辞典)』의 치고에 대한 설명 중에는 치고란 “일부 사원이나 귀족·무가 등의 곁에서 시중을 들던 소년을 칭하며, 이들이 남색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마쓰오카 심페이(松岡心平)는 “사원에서 불었던 남색관계의 불이 초래한 특이한 존재 <치고>의 바람이 헤안 말기 경에 귀족사회로 또, 가마쿠라 말기에는 무가 사회로 침투하여 만연함에 따라 치고를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아끼고 칭찬하였다”고 하며, 나아가 치고 문화가 문예 분야로도 확산되어 “치고모노가타리라는 픽션이 탄생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⁴⁾. 일본 중세 사회에는 이처럼 특별한 의미의 치고 문화가 깊게 침투되어 있었고, 그 배경에는 동자를 신과 가까운 존재로 여기며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던 동자신앙의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치고와의 교감은 신성성을 갖는다는 민속적·종교적인 해석으로 치고와의 관계를 승화시켰던 것이다. 민속신앙에서는 치고가 부정 타지 않은 존재로써 신의 영역에 가장 가까운, 혹은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신성한 대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례 시에는 치고를 신령이 머무는 대상으로써 중요시 했다. 이러한 동자신앙이 라고 할 수 있는 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전통적인 제례의 장을 중심으로 치고 예능이 전승되어 온 것이다. 제례에 참여하는 치고는 얼굴에 흰 분을 바르고 화려한 옷을 입어 아름답게 치장을 하며, 땅을 밟으면 신성성을 잃는다고 여겨 말을 타거나 어른의 목마를 타고 이동하기도 한다. 이렇게 꾸며진 치고는 마쓰리 행렬에 참가하거나 신에게 제물로 음식을 올리기도 하고, 춤을 봉납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야마 현(富山県)에 전승되고 있는 옛츠키치고마이(越中の稚児舞)²⁵⁾, 이와테 현(岩手県) 모쓰지(毛越寺)의 엔넨(延年)과 야마가타 현(山形県) 구로카와노(黒川能)의 치고마이인 대지밟기(大地踏), 니가타 현(新潟県) 야히코 신사(弥彦神社)의 아마이누마이(天犬舞)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치고에 의한 무용인 치고마이는 각 지에 민속예능으로 다수 남

24) 松岡心平(1991) 『宴の身体-バサラから世阿弥へ-』 岩波書店, p.117

25) 도야마현(富山県) 소재 가모 신사(加茂神社), 호후쿠지(法福寺), 구마노 신사(熊野神社)에 각각 전승되고 있는 치고마이를 옛츠키치고마이로 칭하고 1982년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아있다. 치고는 민속예능과 사원의례 등 일본의 전통적인 제례에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던 것이다.

3.2. 야마호코(山鉦) 순행과 치고

시간의 관심을 끄는 야마호코 순행이 시작된 시기는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 1336-1392), 14세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야마지 고조(山路興造)는 기온고료에 호코(鉦)에 관련된 첫 기록으로 『하나조노텐노신기(花園天皇宸記)』 1321년(元亨元年) 7월 14일조를 들고, 그 내용 중 귀족들끼리의 내기에서 진 쪽이 기온고료에 행렬의 예능 중 호코를 끄는 연기를 했다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호코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²⁶⁾ 이 문헌을 통해 당시 기온고료에 호코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같은 기록 1332년 6월 7일조에는 “기온고료에 행렬에 참가한 호코가 무기로 사용될 염려가 있다는 막부의 주문에 따라 호코 행차에는 반주소리 없이 단지 북으로만 연주 하였다”²⁷⁾고 적고 있다. 호코가 무기로 사용될 만큼의 규모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음악 반주를 동반한 대규모 호코의 이동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야마호코 순행의 원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야마호코 순행의 행차 시에 수반된 각종 예능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기온마쓰리의 기원인 고료에 의례 때와도 유사하며, 특히 치고의 존재가 이미 등장하고 있음을 『일본삼대실록(三代実録)』 863년(貞觀五年) 5월20일조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율사 에다쓰(慧達)가 강사가 되어 금광명경 일부와 반야심경 육권을 강설하였다. 아악료 소속 악인에게 음악을 연주하도록 하였고, 천황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아동이나 양가의 치고(稚子)가 당과 고려의 춤을 추고, 또 잡기와 산악의 재능을 겨루었다. 이 날은 왕의 명에 따라 신센엔 사방의 문을 열고 도읍 사람들이 출입하여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²⁸⁾

26) 山路興造「祇園御靈会の芸能—馬長・久世舞車・羯鼓稚児—」『芸能史研究』(94), 19쪽

27) 今日祇園御靈会梓等、可止兵具之由、武家奏聞之、即被仰勅答、今日梓等皆以無音、只叩鼓許也(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컬렉션 『花園院宸記』에서 인용)

28) 延=律師慧達。為=講師。演=說金光明經一部。般若心經六卷。命=雅樂寮伶人。作=樂。以=帝近侍兒童及良家稚子。為=舞人。大唐高麗更出而舞。雜伎散樂競盡=其能。此日宣旨。開=苑四門。聽=都邑人出入縱覽。

신센엔에서 국가적인 행사로 실시된 고료에가 불교의 독경을 시작으로 하여 동자들의 춤, 산악 등 다양한 예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와키타 하루코는 교토의 기온마쓰리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 날의 고료에 의례에는 “훗날의 기온고료에 미코시(御輿) 행차 행렬에 포함되어 있던 모든 것이 이미 빠짐없이 다 들어있다”²⁹⁾고 지적하고 있다. 위 인용문 중에서 특히 863년 당시의 고료에 의례에 치고에 의한 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 당시에도 신분 높은 양가의 치고가 춤을 추었던 것처럼 현재의 야마호코 중 나기 나타호코에 타고 태평무를 추는 치고도 역시 재력가의 자녀 중에서 선발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용문 말미에 황거의 일부였던 신센엔을 개방하여 교토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도록 했다는 기록을 통해 이날의 고료에가 국가적인 행사로 열리고 있지만 민중에게 개방된 제례였음을 시사한다.

고료에를 기원으로 하는 기온마쓰리는 이상에서 보듯이 제례형식을 답습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화 또한 적지 않다. 그 변화란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코시도교와 오타비쇼의 설치라는 구조적 변화, 그리고 예능의 중심이 산가쿠구루마마이, 덴가쿠, 우마오사와라와의 순으로 옮겨왔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무엇보다도 커다란 변화는 본래 기온마쓰리의 중심이 미코시도교에서 야마호코순행으로 옮겨갔다는 점이다. 기온마쓰리의 역사, 특히 야마호코의 등장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미코시도교 중심으로 시행되던 마쓰리의 구조가 무로마치 시대에 미코시도교와 야마호코 순행의 이중구조로 변화하였으며, 귀족층이 후원하던 우마오사와라와는 무로마치 초기이후 폐지되고, 그 이후에 교토의 신흥 도시민이 이끄는 야마호코가 궁궐 앞까지 행진했다고 한다.³⁰⁾ 기온마쓰리는 신사 측이 공양하는 미코시 중심의 행렬과 신양자 집단이 공양하는 우마오사와라와를 중심으로 한 행렬의 2중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기온고료에 모습을 그림으로 담은 『연중행사 에마키』의 고료에 제례행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중행사 에마키』 9권에는 미코시도교가, 12권에는 왕족이나 귀족이 후원했던 예능행렬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하지만,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까지 귀족들에 의해 유지되어 온 기온마

29) 脇田晴子(1999) 『中世京都と祇園祭』中公新書, 1999, pp.4-5

30) 山路興造(1986) 「祇園御霊会の芸能—馬長・久世舞車・羯鼓稚児—」 『芸能史研究』 94, pp.15-29, 脇田晴子(1999) 『中世京都と祇園祭』中公新書, pp.162-178, 小笠原尚宏(2005) 「山車祭りにおける神輿渡御の変容—佐原市本宿の祇園祭を事例にして」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24, pp.163-181

쓰리는 14세기에 들어 신흥세력이 등장함에 따라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일으킨다. 신흥세력이란 이 시대 새롭게 경제력을 가지게 된 교토의 유복한 상공업자들이다. 이들은 귀족층이 후원하던 축제용 수레 야마(山)와는 달리 화려하고 웅장하게 호코를 장식하고 교토 시내를 순행하였다. 마쓰리를 영위하는 신앙집단의 이동이 미코시도교 중심의 기온마쓰리를 야마호코 순행 중심으로 바꾸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산조긴타다(三条公忠, 1324-1384)의 일기 『고구마이키(後愚昧記)』에는 미코시도교와 제례가 없을 때에도 야마호코 순행만큼은 진행되었다는 기록이 종종 눈에 띈다.³¹⁾ 이를 두고 신사 측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의례를 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대신 경제력을 가진 도시민들이 야마호코 만이라도 진행시키려 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³²⁾ 하지만, 미코시 없이 야마호코 순행만 진행했다는 기록들을 통해 제례의 관심이 미코시에서 야마호코 순행으로 쏠리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으며, 야마호코가 단순히 여흥으로써의 기능만이 아닌 의례적인 역할도 분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야마호코 순행 시에는 나기나타호코가 선두에서 서며, 나기나타호코의 심볼인 치고가 거대한 호코 위에서 태평무를 춘다. 치고의 태평무는 야마호코 순행 초반의 금줄자르기와 더불어 치고의 중요한 임무이며, 마쓰리가 무사하게 끝나기를 기원함과 동시에 기온마쓰리의 본질인 액을 도시에서 몰아내 안정된 한해를 보내게 해달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 부를 축적한 교토의 상인층이 기온마쓰리의 주축이 되면서 미코시 행차보다는 야마호코 순행이 주를 이루는 모양세가 되었지만, 기온마쓰리의 본질이 미코시 행차와 더불어 미코시에 모셔진 신에 대한 기원에 있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지금은 야마호코 순행 뒤에 야사카 신사의 미코시 행차가 이루어지는데, 본래 미코시도교 때는 미코(神子)가 미코시 옆을 따른다. 이를 두고 “보통 신이 강림하는 매개체가 어린아이인 경우도 많지만, 야사카 신사의 경우는 고즈텐노의 탁선이 미코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미코가 미코시 곁을 지키며 따르는 것이다”³³⁾라는 설명은 매우 흥미롭다. 미코시의 곁에는 신체이며 탁선을 하는 미코가 있듯이 야마호코에는 치고가 자리하여 미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야마호코와

31) 応安三年(1370), 永和二年(1376), 康歴二年(1380) 각 6月7日条

32) 矢野環·島尾新 『茶道·香導·華道と水墨画』 淡交社、2006、38쪽.

33) 脇田晴子 『中世京都と祇園祭』 中公新書, 1999, 126-128쪽

치고’는 ‘미코시와 미코’라는 관계에 대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대응 관계가 호코치고 등장배경의 하나라고 설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야마호코 순행은 미코시 행차에 앞서 길을 나서 역신을 진좌시키고, 부정을 정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이 때 함께 등장하는 나기나타호코치고 역시 호코의 심불이면서 동시에 역신을 진좌시키기 위한 신성한 존재이다. 이는 기온마쓰리에 참여하는 33기 호코와 야마에 공통된 특징이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기온마쓰리에 대한 관심은 야마호코 순행과 그 중에서도 나기나타호코치고에 집중되어 있다. 기온마쓰리에는 본래 마쓰리의 주역이었던 미코시를 선도하는 구세고마가타치고(久世駒形稚児)와 아야가사호코(綾傘鉦) 행차를 선도하는 아야가사호코치고(綾傘鉦稚児)등이 있다. 특히 나기나타호코치고에 대한 대중의 관심에 가리어 존재감이 열린 구세고마가타치고는 야사카 신사의 주신인 고즈텐노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받들고 있으며, 당초에는 나기나타호코에 비해 훨씬 중요한 역할이었을 것이다. 현재 야사카 신사에 입장할 때 나기나타호코가 말에서 내려서 들어가는 것과는 달리 고마가타치고는 위세 좋게 말을 탄 채 들어간다. 신사 경내에 말을 탄 채 출입할 수 있는 것은 고마가타치고 뿐이다. 또한, 아야가사호코는 기온마쓰리의 이키치고이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나기나타호코치고만이 유일한 이키치고라고 기술하고 있다. 나기나타호코의 예처럼 호코를 타지 않고 걸어서 이동한다는 차이점은 있으나 이들은 10세 전후의 6명의 소년으로 구성된 이키치고들이며, 이들 또한 치고 화장과 치장을 하고 아야가사호코에 앞서 걸으며 길을 정화하는 신성한 역할을 하고 있다.

4. 호코치고(鉦稚児)와 치고마이(稚児舞)

제례공간에서는 성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었던 치고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나기나타호코치고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도 이키치고인 그가 기온마쓰리의 본질인 역병퇴치와 마을공동체의 번영을 기원하는 신성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온마쓰리에서 나기나타호코치고가 태평무를 추는데, 이 때 가슴에 작은 북인 각코(鞞鼓)를 메고 있으므로 각코치고(鞞鼓稚児)라 칭하기도 한다. 이 나기나타호코치고의 등장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라쿠슈라쿠가이즈묘부(洛中洛外図屏風)』 그림 중 야마호코에 치

고가 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무로마치(室町, 1336-1573) 후기에는 정착했을 것이라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야마호코에 탑승한 치고의 등장배경 또한 명확하지 않다. 우에키 유키노부는 기온마쓰리 각코치고의 등장은 중세의 제례 의식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코치고마이의 유풍을 남기고 있는 야마호코나 이 계통의 마쓰리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고 하면서 민속예능을 중심으로 그 예를 조사하고 있다.³⁴⁾ 우에키의 연구를 통해 각코치고마이가 중세에 이미 유행하고 있었던 예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발생 시기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민속예능의 특성상 각지에 남아있는 각코치고마이가 역으로 기온마쓰리의 영향을 받아 성립한 예능일 가능성도 크므로 이 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코치고마이의 유행은 중세 치고 예능의 성행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미야모토 게조(宮本圭造)는 중세후기에 젊은 층과 소년으로 구성된 예능집단의 활약이 눈에 띄고, 이와 함께 치고 예능이 유행하는 것은 당시 사회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민속예능에 있어서 마쓰리의 야마와 다시를 무대로 삼아 각코마이가 연희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하였다.³⁵⁾ 앞장에서 마쓰오카 심페이(心平)의 논을 들어 중세의 치고 문화가 문예에도 유입되었다고 했는데, 이는 예능의 세계에서든 예외는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세마이(曲舞) 계통의 고와카마이(幸若舞)에 등장하는 요시쓰네(義経)가 비극적인 미소년 이미지로 그려지거나, 「아타카(安宅)」 「후나벤케(船弁慶)」와 같은 노(能)에서 나이 어린 고카타(子方)가 요시쓰네를 연기하는 등 소년 배우의 활약이 성행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치고 예능의 성행은 소년의 양성구유적인 아름다움에 미적가치를 두었던 당시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하나의 요인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어린 소년, 치고를 신성하다고 여기는 고대의 신화적인 관념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야마지 고조는 현재의 기온마쓰리에 있어서 각코치고의 루트가 무로마치시대의 ‘구세마이구루마의 치고(久世舞車の稚児)’라고 지적하고 있다.³⁶⁾ 구세마이는 북이나 창에 맞춰 부채를 들고 춤을 추는 형식의 예능으로 중세에 유행했으며, 특히 여성이나 치고에 의한 구세마이가 주류를 이룬다. 무로마치 이후로는 거의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구세마이 무용수의 후손이 기

34) 植木行宣·田井竜一編(2010)『祇園囃子の源流』岩田書院, pp.103-106

35) 宮本圭造(2006)『室町後期の芸能と稚児・若衆』『中世文学研究は日本文化を解明できるか』笠間書院, 2006, p.227

36) 山路興造(1986)『祇園御霊会の芸能一馬長・久世舞車・羯鼓稚児一』『芸能史研究』94, p.28

온마쓰리의 구세마이구루마에서 춤을 추었다는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제아미(世阿弥)가 저술한 『고온(五音)』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미치노쿠세마이는 가미도·시모도·니시노가쿠·텐지쿠·가가죠의 (다섯)유파이다. <이 가가류의 오토즈루에게 망부 강아미는 구세마이를 배웠다> 가가는 나라의 하쿠만이라는 온나구세마이의 후손이라고 한다. 지금은 구세마이를 출사 사람이 없어 대가 끊기고 온나구세마이인 가가죠의 후손밖에 남아있지 않다. 기온고료에의 다시 위에서 추는 구세마이는 이 집안이다. 37)

이상의 인용문에 의하면 구세마이에는 다섯 유파가 있었지만, 제아미 시대에는 가가류(賀歌流)의 후손만이 남았다. 가가는 그 유명한 하쿠만이라는 이름의 온나구세마이의 후손이었고, 기온고료에 때 다시 위에서 구세마이를 추는 사람이 온나구세마이인 가가죠 집안의 후손이라 하였다. 구세마이의 명맥은 거의 끊겼지만, 기온마쓰리 행렬에 가가류 후손에 의한 구세마이가 참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위의 인용문에는 제아미의 부친 강아미(觀阿弥, 1333-1384)가 가가류의 오토즈루(乙鶴)에게 구세마이를 배웠다는 제아미의 증언이 실려 있는데, 강아미가 구세마이를 노에 도입함으로써 노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노의 역사를 이야기 할 때 구세마이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다. 구세마이는 일찍이 명맥이 끊겼지만, 노를 비롯한 중세예능에 대대적인 영향을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와키타 하루코는 구세마이구루마가 누군가 기도를 위해 무용수를 고용하였으며, 이것은 곧 신에 대한 봉납이었다고 하는 시점을 제시하였다.³⁸⁾ 구세마이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중세 남북조시대로 보고 있으므로 야마호코 순행이 시작된 14세기와 동시대이다. 더욱이 와키타의 지적과 같이 신에 대한 기원을 담아 추는 춤이었다는 점에서 나기나타호코의 각코치고마이의 역할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무로마치 시대까지는 전문적인 예능인이 마쓰리의 다시를 무대로 구세마이를 연희하였지만, 무로마치 말기에 이르러 구세마이를 이어갈 무용수의 맥이 끊기면서 누군가 이 역할을 맡아야 했을 때, 치고에 의해 대체되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원래 구세마이는 여성이나 치고가 추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구세마이 무용수는 아

37) 道ノ曲舞ト申ハ、上道・下道・西岳・天竺・賀歌女也。〈乙鶴、此流ヲ亡父ハ習道アリシ也〉賀歌ハ、南都ニ百万ト云女節曲舞ノ末ト云。今ハ、皆々、曲舞ノ舞手〈人体〉絶エテ、女曲舞ノ賀歌ガ末流ナラデハ不レ殘。祇園ノ會ノ車ノ上曲舞、コノ家ナリ (인용은 『日本思想大系 世阿弥·禅竹』에 의함)

38) 脇田晴子(2001) 『傀儡女·曲舞·白拍子 女性芸能の源流』角川選書, p174

나라도 야마호코에게 이 역할을 기대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온마쓰리에 나기나타호코 치고가 출현한 처음부터 태평무를 추었을 지의 여부는 확인하기 쉽지 않지만, 구세마이를 대신하면서 호코치고의 성격이 변화되었을 수도 있다. 아야가사호코의 치고와 같이 호코의 앞길을 정화하는 역할에 더해 구세마이구루마의 치고마이의 영향으로 태평무라 일컬어지는 각코마이를 봉납하는 중요한 임무까지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나기나타호코치고의 등장에는 헤안 시대에 성행했던 우마오사와라와의 영향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나기나타호코치고와 우마오사와라와의 사이에는 작은 북을 메고 있다는 큰 차이가 있지만, 우마오사와라와가 폐지되면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로 호코치고가 등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기온마쓰리의 중축이 귀족층에서 도시 상공인들로 변화하면서 고대부터 신이 동자의 모습으로 시현한다는 믿었던 공동체의 환상이 우마오사와라와에서 호코치고로 대체된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고대 일본인들은 동자·소년에 대한 이미지, 즉 동자가 신성한 존재, 혹은 신불의 화신이라고 하는 신화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공동체적 합의 하에 치고를 마쓰리의 하이라이트에 배치하였고, 기온마쓰리의 각코치고에 의한 태평무를 성립시킨 것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기온마쓰리의 야마호코 순행이 시작된 14세기 일본사회의 종교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동자신앙, 동자에 대한 신화적 의례적 해석을 통해 치고마이의 등장배경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기온고료에는 메이지 이후 기온마쓰리라 불리고 있다. 헤안 시대의 기온마쓰리는 신사 축의 미코시, 덴가쿠를 중심으로 한 예능 집단 그리고, 귀족층이 특별히 후원했던 우마오사와라와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지만, 14세기 교토의 신흥세력의 등장과 함께 구조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였다. 바로 야마호코 순행의 시작이다. 무로마치 시대의 기록에 보이던 우마오사와라와가 모습을 감추는 대신 야마호코 순행과 이에 수반된 예능이 절정을 이루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대가 흐르면서 기온마쓰리 예능의 중심도 변화하였지만,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나기나타호코치고의 등장과 치고에 의한 각코마이이다. 나기나타

호코치고의 등장과 각코마이(角子)의 성립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중세의 구세마이와 구세구루마마이(久世久留馬)의 치고 예능, 그리고 동자를 신성시 하는 민속사상을 배경으로 한 고대의 치고 문화 등 종합적인 시점에서 접근 했을 때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기나타호코치고의 등장배경과 역할에 대하여 앞으로 더 살펴보아야 할 과제는 우선 노(能)의 〈가게쓰(花月)〉나 〈지넨 거사(自然故事)〉와 같은 작품을 통해 각코치고 예능의 원류와 영향관계를 찾는 작업이다. 특히, 노 〈가게쓰〉는 제아미 시대에 이미 만들어졌으며, 노 작품 중에서도 이른 시기의 곡이다. 이 곡의 주인공인 치고가 극의 정점에서 각코마이를 추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민속예능 중에는 정제된 노 무대의 영향을 받은 예가 적지 않으므로, 노 〈가게쓰〉의 치고마이와 기온마쓰리의 영향관계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치고문화의 사상적 배경에 있는 중세의 동자신앙은 ‘옹동신앙(翁童信仰)’사상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옹동신앙은 신불이 노인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시현한다는 관념으로, 옹동신앙의 신화적인 해석이 각종 제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도시 상인이 중심이 된 기온마쓰리에서는 주로 치고라는 신성성을 가진 동자가 활약하는 반면, ‘오키나’라는 노인신은 드러나지 않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기온마쓰리의 지지층이었던 유복한 도시 상인들은 현란한 치고를 정면에 내세우고 오키나가 등장할 자리는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호코치고의 성립배경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기온마쓰리에서 오키나라는 노인 신이 배제된 배경에 대해서도 고찰할 여지가 남아있다.

【참고문헌】

脇田晴子(2001) 『傀儡女・曲舞・白拍子 女性芸能の源流』 角川選書, 2001, p.174.
 脇田晴子(1999) 『中世京都と祇園祭』 忠公新書, 1999, pp.2-64.
 植木行宣・田井竜一編(2010) 『祇園囃子の源流』 岩田書院, 2010, pp.103-104.
 山路興造(1986) 「祇園御霊会の芸能一馬長・久世舞車・羯鼓稚児一」 『芸能史研究』 94, pp.15-29.
 井上満郎(1976) 「御料信仰の成立と展開」 『奈良大学紀要』 5, p.196.
 三橋健(2007) 『神社の由来がわかる小事典』 PHP新書, p.202.
 小山利彦(2013) 「祇園御霊会と王朝文学」 『立命館大学』 630, p.626.
 吉田孝次郎(1993) 「祇園会と渡来懸装染織品」 『日本研究』 9, p.46.
 松岡心平(1991) 『宴の身体-バサラから世阿弥へ-』 岩波書店, p.117.
 伊藤信博(2003) 「御霊会に関する一考察(御霊信仰の関係において)」 『言語文化論集』 24(2), pp.3-17.

- 小笠原尚宏(2005)「山車祭りにおける神輿渡御の変容—佐原市本宿の祇園祭を事例にして」『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24, pp.163-181.
- 三好賢周(1997)「情報文化と伝統文化について」『情報文化学会全国大会講演予稿集』5, pp.36-42.
- 宮本圭造(2006)「室町後期の芸能と稚児・若衆」『中世文学研究は日本文化を解明できるか』笠間書院、p.227.

논문 투고 일자 : 2018. 01. 10.

논문 심사 일자 : 2018. 01. 31.

게재 확정 일자 : 2018. 02. 05.

< 要 旨 >

稚児芸能の受容
- 祇園祭を中心に -

金賢旭

祇園祭は京都八坂神社の祭礼で、日本三代祭の一つである。祇園御霊会が正式な名称で、明治以来祇園祭と称されるようになった。祇園御霊会の起源は、疫病退治を目的とする御霊会である。平安時代に盛行した御霊信仰を背景に、御霊会が頻繁に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当初の祇園御霊会は、御霊を御輿に載せ、海へ流したり、神泉苑に送って祭礼を行ったりしていたが、神輿渡御や山鉦巡行という構造の変化がおこななかで、芸能の要素がより充実化されてきた。最初は、貴族が信仰者側にたち、祇園御霊会の神輿渡御の後に並ぶ馬長童を奉納することが盛んだったが、室町後期になってから馬長童は姿を消した。その代わり、山鉦に載る稚児が登場してきた。いままで、神輿渡御が祇園祭の中心であったが、町衆が関与する山鉦巡行に祭の中心が移ることとなったのが、14世紀である。京都の振興勢力である商工人によって、祇園祭の担い手が取って代わられたのである。彼らは、山鉦をよりきらびやかに飾り、規模を大きくしていった。そのなかで生まれたのが、山鉦の稚児である。今や祇園祭の中核となる長刀鉦の生稚児が人々の関心を集めている。長刀鉦稚児の登場をめぐっては、まだよくわかっていない。馬長童、久世車舞の稚児、中世に流行った羯鼓舞など、多様な影響を受けて成立したと考えられる。特に、中世の童子信仰という思想的側面から考えることが何より重要である。また、中世の能の作品に描かれている稚児の羯鼓舞との影響関係も併せて考慮に入れる必要があろう。

The study of the Gion Festival and Chigo

Kim, Hyeon-Wook

The Gion Festival is one of three Japanese festivals. The festival was developed alongside the Goryo faith in the Heian period, and it received its current name during the Meiji era. In its earliest form, the Gion Festival featured the Goryo being placed on a shrine and sent out to sea. Or they did a festival at Shinsen-en. During this period, there was a change in the Mikoshidogyo and Yamahokozyunko, and entertainment also increased. In this era, it was common for aristocrats to dedicate "Umaosawarawa." However, in the latter part of Muromachi, "Umaosawarawa" disappeared, and "Yamahoko Chigo" appeared instead. "Mikoshidogyo" was the center of the Gion festival until the 14th century when "Yamahokozyunko" gained prominence. The "Machisyu" in Kyoto festively decorated the "Yamahoko" and increased its scale., leading to "Yamahoko Chigo," which is now the center of the festival. However, the origin of "Naginatahoko Chigo" is unclear. It may have been established under various influences such as "Umaosawarawa," "Kusemaikuruma Chigo," and "Kakko dance" but especially has influences of medieval "Dozi faith."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influence of the "Kakko dance" of Chigo depicted in the medieval "Noh."